

중전기기의 수출입 동향

1. 서 론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들 한다. 왜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장사가 잘 안되고, 임금이 높아 제품가격이 비싸고, 외국제품에 밀려 잘 안팔린다고 한다. 물론 그에 대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하던 기업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다.

최근에 각 기업들이 인력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품의 품질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국제화, 개방화라는 거대한 물결속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국민의 의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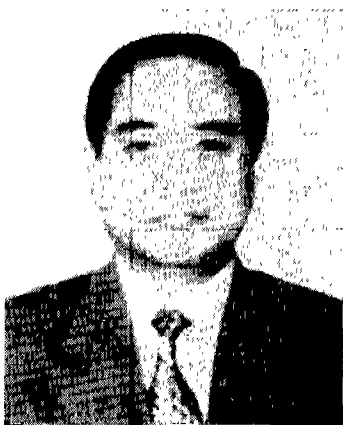
우리가 아직 기술과 품질면에서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점에서 세계화와 개방화가 너무 빨리 도입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그동안 우리 기업의 내수안주라는 의식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사용자의 국산제품에 대한 인식저하와 국산 신제품에 대한 품질 및 신뢰도를 믿지 못하고 외국제품의 선호사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측에서 보면 생산업체가 기술개발에 너무 소홀하고 제품의 품질이 떨어져 국산제품의 사용에 겁이 난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은 외국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크게 문제삼지 않으나 국산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 제품을 사용하자고 한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순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쉽게 국산제품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도 업체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그리고 원가절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한가지 큰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중전기기산업은 초기부터 기술개발보다는 기술도입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원천적인 우리의 기술이 없고, 중전기기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기술개발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며 주문생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술개발을 기피해온 것도 오늘날의 중전기기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중전기기산업은 날이 갈수록 수출이 저조하고 수입은 예상을 초월하여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중전기기산업은 고급제품은 선진국에 밀려 이제까지 중·저급제품에 경쟁력을 집중시켜 왔으나 후발공업국과 중국 등이 중·저급제품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위협하고 있고, 외국업체의 동남아 현지공장 신증설로 우수제품이 값싸게 생산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제품은 생산원가 상승으로 경쟁력마저 떨어져가고 있어 미국과 일본의 무역적자를 동남아에



✕ 글/이 우 공 ✕
(통상산업부 전기공업과장)

서 메워 나가던 시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며, 오히려 동남아시아를 중국 등 후발공업국에 넘겨주어야 할 위기적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과 수입선다변화정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꾸준히 지속하여 왔으나 이제 3~4년내에 우리사회에서 사라져갈 것이고, 세계 무역기구에 의거 급년부터 시작되는 시장개방과 2000년부터 시작되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관세무세화 협상의 타결로 우리업체의 입지가 날로 축소되어 가고 있어 우리업체는 이제부터라도 국내외에서의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경쟁으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중전기기의 수출입 동향을 기고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언급을 한다면 우리업체가 자기 생산제품에 대한 정확한 수급동향 인식과 수출을 조금이라도 늘여가고 수입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것과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보자는 것 그리고 중전기기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통계를 기록·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중전기기의 범위

우리나라 중전기기의 수급동향을 논하기 전에 먼저 중전기기의 범위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조직개편이나 품목분류 변경 등 여러가지 변동사항에 따라 수급통계가 달라지고 있어 그

때마다 통계자료에 대한 혼란으로 실무적으로나 연구분야에 크다란 영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의 기록 및 유지는 우리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산업의 발전을 분석·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중전기기의 범위는 정부의 업무분장 변화에 따라 다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크게는 전원용 전기기기와 산업용 전기기기로 분류하고 있지만 전선이 중전기기나 아니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일단 전선을 중전기기에 포함시켜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중전기기의 통계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두가지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전선을 포함한 전체 중전기기를 나타낼 경우와 다른 하나는 전선을 제외한 중전기기를 나타낼 경우가 있다. 이 두가지 자료는 그때 그때 사용할 때마다 설명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으며 또 업무의 영역이 '80년대에는 중전기기의 범위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콘베어와 환경산업기기, PLC 등이 중전기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90년대에 와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콘베어와 환경산업기기, PLC 등이 제외되었으며 가정용 에어컨, 건전지 및 축전지가 포함되었고 '95년 이후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콘베어와 환경산업기기, 가정용 에어컨, 건전지, 축전지 그리고 소형전동기가 중전기기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95년 이후 중전기기 수급통계에는 발전기, 전동기, 전동공구,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및 부분품,

배전제어장치, 변환장치, 전기로 및 가열기, 전기용접기, 전압조정용기기, 전극 및 전자석, 애자류, 기타 전기기기(전기기기 절연용물품, 적산용계기, 전기도급·분해용기기, 점속용기기, 기타 전기식 부분품) 등 14개 품목과 전선(권선용전선, 통신용전선, 전력케이블)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본고에는 현재의 중전기기 품목중 전선을 제외한 전품목에 대한 수급통계를 '92년부터 '96년까지 정리한 자료이며, 조명용기기는 중전기기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3. 중전기기 수급동향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87년에서 '92년까지 내수는 연평균 11.6%의 성장을 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평균 10.4%의 성장을 하였고, 생산은 '87년에서 '92년까지 13.6%의 높은 성장을 하였으나 '92년부터 '96년까지는 10.3%의 성장에 머물렀다. 수입은 '87년부터 '92년까지 연평균 8.9%의 성장을 보였으며 '92년부터 '96년까지는 14.1%의 높은 성장을 하였다(표 1).

수출은 '87년부터 '92년까지 연평균 14.9%의 높은 성장을 하였고 '92년부터 '96년까지는 21.0%의 고도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수출 증가율은 '94년에 22.8%, '95년에 28.8%를 고비로 지난해에는 20.6%로 떨어져 향후 중전기기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 증가가 수입증

정책자료

<표 1> 중전기기 수급추이

(단위 : 백만불)

구분		'92	'93	'94	'95	'96	연평균 증가율(%)
수요	내수	3,686	3,904	4,405	4,963	5,468	10.4
	수출	538	604	743	957	1,154	21.0
계		4,224	4,508	5,148	5,920	6,621	11.9
공급	생산	2,495	2,748	2,963	3,100	3,690	12.2
	수입	1,729	1,760	2,185	2,820	2,931	14.1

<표 2> 국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년도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말련	EU	싱가폴	대만	기타	계
'93	105	30	137	53	43	41	33	21	142	605
'94	145	51	120	61	39	51	40	19	217	743
'95	180	90	153	80	68	77	50	22	237	957
'96	234	184	165	99	94	64	26	24	264	1,154
년평균 증가율	30.6	83.0	6.4	23.2	29.8	16.0	-8.3	4.6	23.0	24.1

주) 전선제외

가보다 훨씬 높은데도 중전기기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95년보다 무역수지적자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18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중전기기의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변압기, 변환장치,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기용접기, 차단기, 전동공구 등의 순으로 수출이 되고 있으며, 국별로는 '96년을 기준으로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EU, 싱가포르, 대만 등의 순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

국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은 '93년까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였으나 '94년부터는 미국에 수출이 격감하면서 일본, 중국, EU 등에 수출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95년 이후 우

리나라의 중전기기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나라는 '93년까지는 미국이었으나 '94년부터는 일본이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로 바뀌었고 중국에 대한 중전기기 수출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96년에는 중국마저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수출국가로 부상했으며 중남미의 수출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표 2).

미국에 수출이 잘안되는 이유는 초소형, 경량화 제품과 첨단제품의 개발이 부진하고 중급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3~4년 사이에 연평균 83%의 매우 높은 수출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10위권 밖

에서 두번째의 고객으로 등장하여 우리나라 중전기기 생산업체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다.

일본도 직접 수출은 잘되지 않고 있지만 종합무역상사나 OEM을 통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중전기기 수출 촉진단의 지속적인 파견과 일본 전력회사 관계자 초청이후 수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에 국가간의 문제로 우리나라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수입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38%라는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말레이시아에 수출이 잘되는 이유는 '60년대의 우리나라 농어촌 전화사업과 같이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위하여 송배전선로의 확충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분간 몇년 동안은 송배전기자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중전기기의 수출전망이 매우 밝은 국가로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등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간의 협력강화로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싱가폴은 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기술수준도 향상되어 중전기기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특성을 잘 이용하여 공략을 한다면 수출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변압기로 '93년에는 총 수출액의 43.7%

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년에는 41.3%, '95년에는 38.6% 그리고 지난해에는 36.1%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가갈수록 변압기의 수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배전제어장치가 '93년 이후 약 50%의 높은 수출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차단기가 41%, 변환장치가 37%, 전기용접기도 30% 이상의 높은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표 3).

변압기에는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소형 변압기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96년에 1kVA 이하의 소형변압기의 수출액은 28백만불이나 된다.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중전기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품목이 바로 배전제어장치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서도 '93년에는 배전제어장치가 총수출액의 불과 7.3%이던 것이 '94년에는 11%, '96년에는 12.8%로 증가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배전제어장치의 수요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단기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면, 전동기는 기술력과 가격이 일본에 떨어지고, 범용제품은 가격경쟁력이 중국과 대만에 떨어져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이 감소되고 있으며, 전기용접기도 범용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중국 등 동남아국가에 떨어져 수출이 어렵고 전동공구 역시 기술과 품질이 일본과 독일에 뒤떨어지고 가격경쟁력마저 떨어져 수출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품목별 국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변압기, 발전기, 변환장치, 전극 및 자석, 애자류 등은 일본

<표 3>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년도	변압기	변환장치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기용접기	차단기	전동공구	기타	계
'93	264	79	44	46	31	24	16	24	76	604
'94	307	73	82	60	41	18	24	36	102	743
'95	369	115	86	59	49	65	33	59	122	957
'96	417	202	148	56	55	53	45	39	139	1,154
년평균 증가율	16.5	36.7	49.8	6.8	21.1	30.2	41.2	17.6	22.3	24.1

<표 4> 국별·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일본	미국	중국	홍콩	말련	EU	싱가폴	대만	기타	계	
전체	'93	105	137	30	54	43	41	33	21	142	606
	'94	145	120	51	61	39	51	40	19	217	743
	'95	180	153	89	80	68	77	50	22	237	956
	'96	234	165	184	99	94	64	26	24	264	1,154
발전기	'93	5	8	0	0	0	10	2	0	5	30
	'94	6	11	1	0	0	8	7	0	8	41
	'95	9	5	2	0	2	5	13	1	12	49
	'96	14	4	9	0	5	2	1	1	20	55
전동기	'93	9	15	1	1	0	4	9	1	7	46
	'94	10	16	3	0	3	3	10	0	14	60
	'95	11	20	5	0	1	5	3	0	14	59
	'96	14	13	13	0	1	4	0	0	11	56
전동공구	'93	1	6	1	7	0	0	1	2	7	24
	'94	1	9	2	9	0	1	2	2	9	36
	'95	2	8	5	8	1	2	3	2	12	43
	'96	1	9	1	14	1	1	3	1	8	39
변압기	'93	46	34	13	36	22	17	16	14	66	264
	'94	54	34	20	40	11	24	14	12	98	307
	'95	65	41	32	51	31	32	18	16	83	369
	'96	65	35	62	58	36	30	18	18	95	417
차단기	'93	1	8	0	0	1	1	1	1	3	16
	'94	2	9	0	0	1	1	2	1	8	24
	'95	3	10	0	3	1	1	1	1	13	33
	'96	7	10	1	1	14	1	0	1	10	45
개폐기	'93	1	0	3	1	0	0	0	0	4	9
	'94	1	0	4	1	0	0	0	0	6	12
	'95	1	0	6	0	0	0	0	0	8	15
	'96	1	0	8	1	0	0	0	0	3	13
배전제어	'93	4	5	1	0	13	2	1	1	17	44
	'94	7	5	1	0	16	4	2	0	48	83
	'95	7	6	9	1	13	10	4	0	36	86
	'96	8	1	39	0	20	10	1	0	69	148

정책자료

구분	일본	미국	중국	홍콩	말련	EU	싱가폴	대만	기타	계	
변환장치	'93	22	40	2	2	0	3	2	0	8	79
	'94	41	17	2	2	0	2	1	0	8	73
	'95	55	30	3	7	0	11	3	0	6	115
	'96	101	61	14	11	1	7	0	0	7	202
전기로 가열기	'93	1	0	1	0	3	0	0	0	3	8
	'94	2	0	4	1	3	3	0	0	1	14
	'95	2	1	10	0	1	1	0	0	6	21
	'96	1	0	7	0	3	0	0	0	1	12
전기용접기	'93	2	1	5	0	1	0	1	6	17	
	'94	3	1	5	1	1	2	0	4	18	
	'95	5	2	6	1	14	4	1	31	65	
	'96	5	1	20	3	7	0	0	16	53	
전압조정기	'93	3	14	0	0	0	0	0	6	23	
	'94	3	12	1	0	0	0	0	1	17	
	'95	3	26	1	0	0	0	0	1	31	
	'96	4	25	0	0	0	0	1	2	32	
전극 및 자석	'93	3	1	0	0	0	1	0	1	6	
	'94	3	2	0	0	0	1	0	2	8	
	'95	5	1	0	0	0	1	0	1	8	
	'96	3	1	0	0	0	1	0	1	6	
애자류	'93	0	0	0	0	0	1	0	3	4	
	'94	0	0	0	0	1	0	0	2	3	
	'95	0	0	0	0	1	1	0	4	5	
	'96	0	0	0	0	1	0	0	2	3	
기타 전기기기	'93	9	3	5	5	2	2	2	0	5	33
	'94	13	3	9	6	4	2	2	1	7	47
	'95	14	4	11	8	3	5	2	1	10	58
	'96	12	6	12	9	7	7	2	0	19	74

에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전동기는 미국에 수출이 가장 많았으나 '96년부터 일본에의 수출이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미국에는 전동공구, 전기로 및 가열기, 차단기, 전압조정기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에는 개폐기, 배전제어장치, 전기로 및 가열기, 전기용접기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고 전동기 및 변압기는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다.

홍콩은 전동공구가 가장 많이 수출되며, 말레이시아는 차단기

및 애자류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고 배전제어장치와 전기용접기는 중국 다음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EU는 특별히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없으나 발전기, 전동기, 전동공구, 변압기, 배전제어장치 등 여러가지 품목이 골고루 수출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대만도 발전기, 전동기, 배전제어장치 등 여러가지 품목이 조금씩 수출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수입은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변

압기, 전기로 및 가열기, 변환장치, 전극 및 자석, 차단기 등의 순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별로는 '96년을 기준으로 일본, EU(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순으로 수입이 되고 있다.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95년에는 전체수입의 51%를 수입하였고 '96년에는 전체수입의 44%를 수입하였다.

EU는 '95년까지 3위의 수입국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왔는데 EU에서는 '96년 총수입액의 22%를 수입하였으며 연평균 28.7%의 높은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 3위의 수입국가로 전락하였는데 그래도 연평균 16%의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 4위의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는데 지난해에는 '95년대비 70.8%의 높은 수입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금년 들어서도 수입증가세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의 저임금과 부지 및 시설투자비가 적게 들어 생산원가가 대단히 싸기 때문에 중국자체도 중전기기 공장을 많이 짓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각국이 중국내에 현지공장을 많이 신설하여 가격경쟁력으로 대 아시아 공략 및 나아가서는 세계공략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의 중국 현지공장에서 많은 중간제품 및 완성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대만과 싱가포르를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국으로 대만은 수출보다 수입이 다소 많고 싱가폴은 수출이 수입보다 다소 많다(표 5).

품목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배전제어장치로 총수입의 16%('93년에는 총수입의 16%, '94년에는 14.8%, '95년에는 16.2% 그리고 '96년에는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전동기로 총수입의 13.6%('93년에 14.2%, '94년에 14.8%, '95년에 13.1%, '96년에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연평균 36%이다.

발전기는 '96년에 총수입의 11.9%를 차지하였으나 '93년부터 연평균 49.8%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변환장치도 연평균 41.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동기가 36.7%, 전기로 및 가열기도 30.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극 및 자석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의 전극 및 자석업체가 영세하고 이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표 6).

국별 품목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기용접기, 변압기, 전기로 및 가열기, 변환장치, 전극 및 자석 등이 수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표 7).

일본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은 전동기, 변압기, 배전제어장치, 변환장치, 전기로 및 가열기, 전기용접기, 개폐기 및 부분품, 전극 및 자석, 애저류 등으로 거

<표 5> 국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년 도	일본	EU (독일)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폴	기타	계
'93	874	300 (139)	396	26	36	25	105	1,760
'94	1,151	371 (155)	402	40	35	29	156	2,185
'95	1,436	530 (270)	564	65	35	37	153	2,820
'96	1,298	639 (282)	616	111	36	21	209	2,931
년평균 증가율	14.1	28.7 (26.6)	15.9	62.2	0	-6.0	25.8	18.5

<표 6>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년도	변압기	변환 장치	배전제 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 기 용접기	전기로 가열기	전극 자석	기타	계
'93	212	114	282	250	204	157	126	108	307	1,760
'94	222	141	324	323	163	215	300	140	357	2,184
'95	278	136	457	332	268	320	421	183	425	2,820
'96	310	195	469	370	349	316	252	188	492	2,931
년평균 증가율	21.1	41.2	16.5	36.7	49.8	6.8	30.2	17.6	22.3	24.1

<표 7> 국별·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일본	EU (독일)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폴	기타	계
전 체	'93	874	300 (139)	396	26	36	25	1,762
	'94	1,151	371 (155)	402	40	35	29	2,185
	'95	1,436	530 (270)	564	65	35	37	2,820
	'96	1,298	639 (282)	616	111	36	21	2,931
발 전 기	'93	25	37 (4)	125	0	0	6	204
	'94	25	41 (4)	78	0	0	11	163
	'95	46	63 (13)	128	0	0	14	268
	'96	49	91 (17)	183	0	1	1	349
전 동 기	'93	193	23 (13)	28	4	9	9	280
	'94	202	40 (17)	28	12	7	10	326
	'95	184	54 (30)	37	18	7	8	332
	'96	192	76 (38)	29	23	5	6	356
전 동 용 접 기	'93	3	9 (8)	6	1	3	4	36
	'94	4	16 (14)	7	1	3	4	51
	'95	7	17 (13)	9	2	3	2	59
	'96	9	20 (15)	10	2	4	2	72
변 압 기	'93	135	20 (3)	18	14	8	4	264
	'94	136	21 (5)	20	20	9	4	307
	'95	160	28 (11)	26	35	10	4	278
	'96	163	26 (11)	24	61	8	5	310

정책자료

구분	일본	EU (독일)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폴	기타	계	
차단기	'93	15	13 (2)	4	0	3	0	1	36
	'94	24	16 (4)	7	0	2	0	2	51
	'95	19	21 (5)	10	0	2	0	0	54
	'96	22	28 (6)	16	0	1	0	0	70
개폐기	'93	19	2 (1)	7	0	0	0	1	29
	'94	17	1 (1)	5	0	0	0	2	25
	'95	17	1 (1)	4	1	0	0	0	23
	'96	14	4 (1)	3	1	1	0	0	23
배전제어	'93	116	72 (55)	73	0	21	1	18	282
	'94	156	70 (44)	70	0	3	1	24	324
	'95	213	126 (90)	89	0	2	2	3	435
	'96	205	142 (100)	89	1	3	2	1	443
변환장치	'93	34	38 (4)	14	2	7	1	18	114
	'94	43	44 (8)	26	3	7	0	17	140
	'95	50	40 (20)	24	5	3	2	12	136
	'96	65	60 (26)	35	13	5	2	17	197
전기로 가열기	'93	68	26 (19)	26	2	0	0	3	125
	'94	199	38 (27)	51	0	0	0	11	299
	'95	285	53 (36)	76	0	0	0	7	421
	'96	117	66 (28)	60	1	0	0	8	252
전기용접기	'93	95	14 (6)	35	9	1	0	12	166
	'94	123	19 (9)	57	0	1	0	16	216
	'95	177	39 (18)	82	0	1	1	19	319
	'96	180	33 (11)	68	1	2	3	40	327
전압조정기	'93	6	2 (1)	3	0	0	0	3	14
	'94	5	1 (1)	2	0	0	0	4	12
	'95	3	3 (2)	2	0	0	0	3	11
	'96	4	6 (3)	3	0	0	0	4	17
전극 및 자석	'93	63	27 (7)	13	1	1	0	4	108
	'94	88	33 (10)	9	1	1	0	7	140
	'95	127	38 (10)	10	1	2	0	1	183
	'96	126	38 (6)	14	4	2	0	1	188
애자류	'93	12	0 (1)	1	0	0	0	1	14
	'94	24	0 (1)	2	1	0	0	2	29
	'95	21	2 (0)	4	1	0	0	4	32
	'96	26	4 (0)	6	1	0	0	2	39
기타 전기기기	'93	91	17 (11)	42	0	2	1	5	158
	'94	103	32 (14)	41	0	2	1	7	186
	'95	123	44 (20)	62	2	4	1	10	246
	'96	126	46 (20)	77	2	4	1	19	275

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EU에서는 전압조정기, 전동공구, 차단기가 가장 많이 수

입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발전기가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그외에 수입이 비교적 많은 품목은

배전제어장치, 전기로 및 가열기, 전기용접기, 전동기, 변압기 등이다. 중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되는 품목은 없으나 변압기, 전동기, 변환장치 등이 수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변압기는 '96년에 '95년의 2배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변압기 수입이 전체수입의 55%를 점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변압기 생산업체의 새로운 작오가 없이는 국내시장이 중국에 밀려나게 될 것이다. 대만에서의 수입은 많지는 않지만 전동공구는 우리나라와 경쟁국으로 점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대만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이 역시 급속히 우리시장을 파고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의 수입이 줄고 있으나 전동기의 수입이 가장 많으며 변압기, 변환장치, 배전제어장치 등은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금년 2월까지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에 그쳤으며,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6%가 증가하였다.

수출은 변압기, 변환장치, 발전기,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전기용접기, 차단기, 전동공구 등의 순으로 많이 되었다.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변압기로 6천만불을 수출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0.3%가 감소하였으며, 변환장치는 26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4%가 증가하였다.

발전기는 17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139%가 증가하였고, 배전제어장치는 14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33%가 감소하였다(표 8).

금년 2월까지 국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이 34백만불로 가

장 많고 중국이 23백만불로 두번째이며 미국은 21백만불, 홍콩이 11백만불, 말레이시아가 9백만불, EU는 8백만불에 불과하다.

대만에도 4백만불이 수출되었고 싱가포르에도 2백만불이 수출되었으나 동남아시아 지역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수출증가율이 매우 부진한 편이다(표 9).

금년 2월까지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수입은 배전제어장치, 발전기, 전기용접기, 전동기, 변압기, 전극 및 자석, 전기로 및 가열기, 변환장치, 애자류, 전동공구, 차단기, 개폐기 및 부분품, 전압조정기의 순으로 많이 되었다.

수입이 가장 많은 배전제어장치는 86백만불이 수입되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34.2%나 수입이 증가하였고, 발전기는 78백만불로 14.8%, 전기용접기는 65백만불로 39.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로 및 가열기는 32백만불이 수입되었는데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32.7%나 되며, 전극 및 자석도 36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23%나 증가하였다(표 10).

수입품목중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변환장치가 24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27.6%가 감소하였고, 차단기는 11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12%가 감소하였으며, 기타 기기도 0.3%가 감소하였다.

금년 2월까지의 국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일본, EU,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순으로 수입이 많았으며, 가장 수입이 많은 일본에서는 2억4백만불을 수입하여 전년 동기대비 12.8%의 증가를 하였고, EU에서는 108백만불을

<표 8>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년도	변압기	변환장치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기용접기	차단기	전동공구	기타	계
'96. 1~2	60	26	14	9	17	6	5	5	20	16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0.3	4.0	-33.4	21.3	139.0	-37.9	65.4	26.6	5.2	3.8

<표 9> 국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년도	일본	중국	미국	말련	EU	대만	싱가폴	기타	계
'97. 1~2	34	23	21	9	8	4	2	49	16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9	65.5	3.7	-53.3	-2.3	8.3	-56.0	-	3.8

수입하여 전년 동기대비 29.4%의 높은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이 EU 전체의 40.7%를 점유하고 있다.

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24백만불이 수입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68.9%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연평균 60~70%나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싱가폴에서의 수입은 많지는 않지만 전년 동기대비 45%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EU로부터의 수입도 전년 동기대비 29.4%나 증가되고 있어 각 업체에서는 자기 품목에 대한 수입증가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표 11).

위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업체들이 각각 생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각 업체가 생산

하는 품목이 수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경쟁국이 어느 정도로 기술과 품질이 향상되어 우리업체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지? 특히 중국이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과 수입이 수출을 점점 초과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등 무한한 숙제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더욱이 정부의 보호도 한계에 부딪치고 수입규제도 풀리고 시장이 점점 개방되어 세계의 모든 상품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업체가 스스로의 힘을 길러서 모든 국가와 모든 경쟁을 이겨 나아가야만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급속도로 다가오는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물결이 우리의 경쟁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어 우리는 과거와 같은 범용제품이나 저가제품을 생산하여 판다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첨단

정책자료

<표 10>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년도	변압기	변환 장치	배전 제어 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 기 용접기	전기로 가열기	전극 자석	기타	계
'96. 1~2	47	24	86	57	75	65	32	36	81	503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4	-27.6	34.2	8.3	14.8	39.8	32.7	23.1	-	3.8

<표 11> 국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년도	일본	중국	미국	EU (독일)	대만	싱가폴	기타	계
'97. 1~2	205	24	100	108 (44)	6	4	57	504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2.8	68.9	-16.1	29.4	-	0	44.9	16.0

신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을 공략하지 않으면 중국과 같은 저임금 후발 개발도 상국에 밀려나고, 고부가 제품이나 첨단 제품은 선진국에 밀려나 우리가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물론 정부는 뒷짐만지고 있겠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과거 처럼 업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자금, 금리, 입지, 노동인력,

임금 등 원천적인 것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규제완화, 해외정보제공, 외국수출의 어려움, 국내 각종 생산원가에 미치는 요소비용, 국내외 규격과 시험, 국내외에서 우리업체끼리의 과당경쟁 등 모든 분야에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이 자료를 정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 자료가 우리업계의 성장·발전을 위

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며 우리 전기공업과를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업계의 정부 주채관 실이라 생각하여 많은 심부름을 시켜 주시고 정부의 기술개발자금과 시설자금을 잘 활용하여 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바란다.

특히 정부는 대사관, 영사관, 무역관 등 해외공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한 각종 해외정보를 입수하여 업계에 전달하고 우리업체들이 해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일도 할 것이다.

따라서 업체들은 정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의 정보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노력해 간다면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국제경쟁에서 이기는 길을 우리 모두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 잡

협회 역사자료 수집

협회는 협회 역사집을 편찬하기 위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신 우리 전기기술자와 협회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이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불문하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많을수록 역사집의 가치는 커질 것입니다.

= 협회 역사편찬실 =